

“지금부터 열심히 배우면 되겠죠?”

동국대 불교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



서로간의 어색함을 털어버린 '윤회담' 놀이.



와선(臥禪). 혹시 너 자고 있나?



어떻게 내 발우야? 어디 한번 찾아볼까!



만해 마을 범종 앞에서 기념촬영 한 컷.

새내기, 신입생 또는 신출내기들 가리키는 말이다. 그럼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는? 대학 신입생들이 공식적인 캠퍼스 생활을 하기 전에 앞서 선배들에게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배우는 자리다.

올해 5월로 개교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 그래서 올해 신입생들의 의미는 특별하다. 앞으로 동국 100년을 이끌고 나갈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불교대 새내기 50여명이 재학생 40여명과 함께 만해 한용운의 청년 정신과 기개가 살아 숨쉬는 인제 만해마을에 모였다. 바로 새터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2월 24일부터 3일간 진행된 불교대 새터 현장에서 만난 새내기들은 어떤 꿈을 꾸며 대학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입학 동기는 달라도 꿈은 같아

새터에 참가하기 위해 2월 24일 이른 아침 동국대 정각원 앞에 모인 새내기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운문사 승가대학을 마치고 다시 불교대에 입학한 명호 스님은 “불교학을 체계적으로 배워 보고자 올라왔다”고 말했다. “공부에는 끝이 없다”는 말 속에 스님의 각오가 느껴진다. 화엄사에서 출가해 행자교육원을 마친 우건 스님은 “강원(講院)도 좋지만 종립대에서 젊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지원했다”고 한다. 은사 스님의 권유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라며 머리를 긁적였다.

고등학생 때부터 요가에 관심을 갖고 있던 미연이는 “요가와 불교학을 함께 배우기 위해 불교대에 왔다”고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 부모님까지 열렬한 불교신자인 범준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불교대에 왔다”며 웃어 보였다.

새터를 위해 급조된 밴드 ‘지방간’을 이끌고 3일 동안 ‘노의장’을 과시한 김승식(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씨는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새내기들의 불교대 입학 동기가 더 다양해진 것 같다”며 “새내기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니 충분히 동국 100년의 주역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견해 한다.

낯선 것에 말 걸기!

약관(藥菴)의 청춘들에게도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어색함은 어쩔 수 없는 듯하다. 새터 첫 날도 마찬가지였다. 말 걸기가 쉽지 않다. 서울에서부터 같이 차를 타고 왔지만 아직도 서먹서먹하다.



“미래 동국 100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2006년 동국대 불교대 새내기들이 학부 선배들과 함께 백담사 일주문에서 힘찬 미래를 다짐하며 환호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대 학생회 집행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이 바로 ‘윤회담’. 만해학교 강당에 두 개의 커다란 원을 그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시간이다.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면 합장을 하고 대화를 시작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자기 소개를 하기 무섭게 다시 징이 울린다. 다른 사람과 또 인사하라는 신호다.

이렇게 2시간 동안 윤회담 시간이 계속되자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로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불교대 새내기들의 대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다.

불교대 최성민(선학3) 학생회장은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새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만해마을로 왔는데, 새내기들이 쉽게 선배들과 어우러지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숨을 돌렸다.

첫날의 서먹함이 사라지자 둘째 날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만해마을을 깨우는 새벽예불과 명상. 눈은 자꾸 감기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스려 정신을 집중해본다. 계속되는 발우공양. 사찰생활에 익숙한 ‘동기 스님’들이 직접 지도 해주니 쉽게 이해가 된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는 함께 차를 마시며 피곤함을 물리쳤다.

만 하루가 지나면서 불교에 대한 감(感)을 잡은 새내기들이 각자의 생각들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한

경이는 “불교의 핵심수행은 선(禪)이라고 하는데, 새벽 참선은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중석이는 “불교에 대해 잘 모른다. 예불이나 발우공양이 너무 낯설다”며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도 세희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배우면 되겠죠?”라며 밝게 웃었다.

불교 미래 우리가 이끈다

차담을 마친 학생들이 만해마을 광장에 다시 모였다. 백담사를 참배하기 위해서다. 만해마을에서 백담사까지는 약 10km.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웃돌았지만, 아직까지 눈이 녹지 않은 설악산에는 한기가 남아 있다. 설악산 계곡을 따라 난 비포장길을 3시간 동안 걷고 또 걸으며 학생들은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때쯤 백담사에 도착했다. 만해마을 공양주 보살과 비구니 스님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한 학생들은 불교대 불교유적답사회 회원들의 안내로 백담사 구석구석을 돌아본다. 일주문과 수심교, 금강문을 지나 범종루, 극락보전, 나한전까지 둘러봤다.

그리고 경내 곳곳에 남아 있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흔적을 둘러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만해 스님의 흉상 앞에서 등기들과 포즈를 취하던 승길이는 “만해 스님이 머물렀던 곳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난다”면서도 다부진 각오를 밝힌다. “동국대가 종립대인 만큼 열심히 불교학을 공부해 만해 스님과 같은 일꾼이 되겠다”고 기업을 토했다.

백담사를 둘러보고 만해마을로 돌아온 새내기들은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 선배들의 공연을 보며 숨어 있던 끼를 맘껏 발산했다.

그리고 3월 초 개강 즈음에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개구리보다 더 멀리 뛰고 캠퍼스 구석구석을 누비는 동국대 불교대 새나기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인제/글=유철주 기자 · 사진=박재현 기자

새내기 50명 선배 40명 참가... '윤회담'으로 서먹함 와르르

백담사까지 10km 걸어, '만해 스님 같은 일꾼 되겠다' 다짐



만해기념관을 둘러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새내기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건강에도 최고!

선물모도 최고!

생명의 빛

건강의 기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신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들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 불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할수 없이 백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있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입니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백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입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 오랫동안 참신기도 하시는 분
- ※ 허약한 氣血복
-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행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생 원적외선이 백속 깊숙히 침투하여 체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문의전화 : 덕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일공휴일도 상담 합니다.